

‘폭주 기관차’ 추신수... 연일 불방망이

KBO리그 적응 끝... 본격적인 홈런왕 경쟁 돌입 20일 4·5호 홈런 작렬 NC 알테어 이어 단독 2위

괜한 걱정이었을까. 시즌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추추트레인’ 추신수(39·SSG 랜더스)가 연일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시즌 초반 1할대 타율에 허덕였던 추신수는 2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원정 경기에서 홈런 2개를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시즌 4·5호 홈런을 작렬한 추신수는 KBO리그 최다 홈런 순위에서도 NC 다이노스 에런 알테어(8개)에 이어 단독 2위 자리를 뒤흔들었다.

올해 큰 기대를 모았던 추신수는 시즌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을 치른 뒤 오랫동안 실전 경기를 치르지 않은 탓인지 경기 감각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다.

그는 MLB 투수들보다 훨씬 느린 KBO리그 투수들의 공에 헛스윙하기 일쑤였고, 기회마다 범타를 양산하며 고개를 숙였다. 추신수는 개막 후 출전한 9경기에서 30타수 5안타 1홈런 타율 0.167에 그쳤다.

그러나 추신수는 KBO리그 10번째 경기부터 무서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10번째 경기였던 16일 KIA 타이거즈와 홈 경기에서 상대 팀 임기영을 상대로 시즌 2호 홈런을 터뜨리더니, 17일 KIA전에서도 외국인 투수 대니얼 뎀텐을 공략해 시즌 3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리고 20일 4·5호 홈런을 작렬하며 물오른 타격감을 과시했다. 그는 최근 4경기에서 18타수 5안타 4홈런, 타율 0.278을 기록 중이다.

초반 9경기보다 타율을 1할 정도 끌어올렸다. 아울러 5개 안타 중 4개를 홈런으로 장식하는 등 남다른 장타력을 보였다. 사실 SSG 팀 내에선 추신수의 부활을 예견하고 있었다.

김원형 SSG 감독은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추신수는 귀국 후 쉬지 않고 훈련 일정을 소화했다”며 “빠르게 몸 상태를 끌어올린 만큼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추신수는 김 감독의 말처럼 초반 9경기를 적응 기간으로 삼은 뒤 10번



타격하는 SSG 랜더스의 추신수. 연합뉴스

째 경기부터 제 실력을 펼치고 있다. 홈런이 특정 상황에 편중되지 않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추신수는 외국인 투수 2명, 국내 투수 3명에게 홈런을 쳤다. 국내 투수 3명 중 두 명은 MLB에서 생소한 사이드암(임기영, 김대우)이다.

홈런으로 연결한 구종도 다양하다. 직구 2개, 체인지업 2개, 슬라이더 1개

를 담당 밖으로 보였다. 추신수의 활약에 SSG는 고속 모터를 단 느낌이다.

주로 2번 타순을 맡는 추신수가 연일 맹타를 휘두르며 테이블세터와 중심타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SSG는 추신수가 살아난 최근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했다. 팀 타율은 초반 9경기까지 0.196에 그치다 0.236까지 상승했다. 연합뉴스



21일 열린 MLB 경기에서 보하르츠에게 스피린 홈런을 내주고 아쉬워하는 류현진. 연합뉴스

류현진 강적 상대 ‘와르르’

MLB 보스턴전 5이닝 4실점 장타 3방에 무너져 시즌 2패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장타 3방을 맞아 시즌 2패째를 당했다.

류현진은 21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 파크에서 보스턴 레드삭스와 벌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홈런 1개 등 안타 8개를 맞고 4실점 했다. 평균자책점은 1.89에서 3.00으로 올랐다.

류현진은 1-4로 끌려가던 6회 교체됐다. 토론토가 2-4로 패해 류현진은 시즌 1승 2패를 기록했다.

전날까지 아메리칸리그 팀 타율 1위(0.289)를 달리던 탐담계 보스턴은 화끈한 타격으로 류현진을 한 번에 무너뜨렸다. 위기는 4회에 찾아왔다.

보스턴의 날카로운 방망이에 1점대

중반을 향해 떨어지던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이 갑자기 치솟았다.

선두타자 크리스천 아로요가 빗맞은 중전 안타로 출루했고, 보스턴 간판타자 J.D. 마르티네스에게 좌전 안타를 맞아 무사 1, 2루에 몰렸다.

이어 유리한 상황에서 4번 보하르츠에게 던진 속구가 실투가 됐다.

보하르츠는 스트라이크 존 북판에 높게 들어온 시속 146km를 놓치지 않고 왼쪽 그린 몬스터 위로 보냈다. 류현진의 시즌 세 번째 피홈런이다.

1사 후 마르윈 곤살레스에게 좌월 2루타를 허용한 류현진은 2사 2루에서 보비 달베에게 중견수 쪽 금지막한 3루타를 맞고 4점째를 쳤다.

지난 14일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류현진은 커터와 체인지업의 절묘한 조합으로 시즌 첫 승리를 따냈지만 이날은 커터를 던졌다가 장타를 허용하는 등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D-93 또다시 빨간 불

일본 내 코로나 4차 유행 우려

일본 내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커지며 93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개막에 빨간 불이 다시 켜졌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도쿄도(都), 오사카부(府), 효고현 등에 긴급 사태 발령이 임박했다고 21일 일제히 전했다.

오는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이전 막바지 준비에 들어가야 할 시점인데도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곳곳에서 일정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날마다 다른 변화가 생기고 AP통신은 짚었다.

코로나19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관중 입장 규모를 이달에서 6월로 미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 등 5개 단체는 이번 도쿄올림픽에는 외국 관중을 받지 않기로 3월에 결정했다.

지난달 25일 일본 후쿠시마현을 출발한 일본 내 성화 봉송은 21~22일에는 에이메현을 방문한다. 연합뉴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도쿄조직위는 일반 도로 봉송 계획을 취소하고 공원에서 봉송 주자들끼리만 약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5월 1~2일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 현에서 열리는 성화 봉송도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뤄진다. 전반에 걸쳐 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할 종목별 테스트 이벤트는 외국 선수 없이 일본 선수만 참가한 상태에서 열리거나 아예 선수를 배제하고 대회 운영에만 초점을 맞춘 형태로 파행 중이다.

일정이 계속 지연돼 종목별로 겹치는 상황마저 발생하자 급기야 국제수영연맹(FINA)은 테스트 이벤트를 겸한 아티스틱 스위밍 도쿄올림픽 예선을 6월 일본이 아닌 나라에서 열기로 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방역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은 환영할 만하다.

도쿄조직위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또 매일 타액 검사를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코로나19 방역 수칙 규범집인 ‘플레이북’ 개정판에 곧 수록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유러피언 슈퍼리그 이대로 무산?

EPL ‘빅6’ 구단들 전원 탈퇴 축구·정치계 대응에 잠정 중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6개 구단이 유러피언 슈퍼리그(ESL)에서 전원 탈퇴한다. ESL은 창설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균열 조짐을 보인다.

21일(한국시간) ESL의 창립 멤버인 EPL의 ‘빅 6’,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첼시, 아스널,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토트넘은 대회 참가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맨시티는 창립 멤버 중 가장 먼저 성명을 내고 “슈퍼리그 발전 계획을 세우는 창단 멤버 그룹에서 철수한다”고 전했다.

다른 5개 구단도 뒤이어 성명을 통해 ‘불참’을 발표했다.

이들 EPL 6개 구단과 AC밀란, 인터 밀란, 유벤투스(이상 이탈리아), 아틀레티코마드리드, FC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등 12개 구단은 이달 19일 당차게 ESL 출범을 선언했지만, 결국 이들 만에 창립 멤버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일부 ‘빅클럽’ 위주의 폐쇄적인 리

그 탄생을 놓고 축구계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면서 결국 뜻을 접었다.

ESL 창설 발표 후 국제축구연맹(FIFA)과 유럽축구연맹(UEFA)을 비롯해 각국 축구협회, 리그 사무국 등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FIFA와 UEFA는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구단들의 국내의 리그와 국제대회 참가를 금지하고 해당 구단에 속한 선수들은 국가 대표팀에서도 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축구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대응에 나선 상황이었다.

앞서 올리버 다우든 문화부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성명에서 “이 일(ESL 출범)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지배구조 개혁부터 경쟁 법까지 모든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반쪽이 된 ESL은 일단 계획을 잠정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ESL은 성명을 통해 “유럽축구의 현재 상황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현재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대회를 제시한 것”이라며 “우리의 제안이 유럽의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오늘 나온 법원의 판결 역시 이를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해상질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 비료 흡수를 올려줌

와산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M 코코리 검색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하하농법 4월의 농사메모

키 위

만감류

마늘

더덕

- 꽃비료 21-17-17 복비 4포 시비 (1,000평 기준)
- 히토락F(5ℓ) 50~100말 희석 **500평** 관주 → 자방을 크게

레드향·천혜향·한라봉 등

- 꽃이 성숙개비 ○ 꽃이 콩알만할때 7일 간격 2회 해피한
- 그린+글루칼(포도당 칼슘)엽면시비 → 당 상승 및 자방 크게

○ 쫄 나을때 ○ 쫄 꺾고나서 ○ 수확 15일전 히토락 100말에 7ℓ+천연가리 엽면시비(농약혼용가능) → 비대효과
※ 수확 15일전에 꼭 살충제를 혼용할것

○ 밀거름(기비)해찬골드 유박 1,000평기준 100포, 용성인비 20포, 쌀맛나 35~40포 고토석회 20~30포
※ 이노페스를 보충해 주면 더욱 좋다(미량요소 및 히토류 공급효과)
○ 2년차 더덕은 영양생장을 위해 아미노산 액비(닭뿔로 가수 분해하여 만든 동물성 아미노산)1ℓ에 50말 엽면시비(농약혼용가능)

“하하농법으로 농민들이 하하웃는 그날까지”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